

노아의 집 장애아동과 함께 가족캠프

한화리조트/산정호수 7월22일~24일까지 함께

한화리조트/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 7월22일~24일까지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이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자동산촌마을' 캠프장을 방문했다. 성수기를 맞이하여 캠프 내내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한화봉사단은 일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화리조트/산정호수 7월22일~24일까지 노아의 집 장애아동들이 '가족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자동산촌마을 캠프장을 방문했다.

7월22일은 나무공예 및 작공예 체험을 23일에는 갑자 개기와 옥수수 따기 체험을 실시했고 7월24일은 많이 내린 장마비로 인해 떡 만들기 캠프와 화이어는 함께 하지 못했다. 아동들은 고사리 손으로 멋진 공예품도 만들고, 밭에 들어가 감자와 옥수수도 수확하는 즐거움을 함께 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하던 아이들은 가족캠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 둘씩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화봉사단 조미희씨는 "올

해가 노아의 집과 한화봉사단이 함께 하는 마지막 3년차 사업이어서 그런지 아동들과 함께 하는 캠프 내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결혼移民者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소장 신상복)는 7월12일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용인 법무부의 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양수 목사, 조항록 교수 등 4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조항록 상명대학교 교수는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특강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성격과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진단했다.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30일 개소하여 결혼이민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KBS아나운서팀들과 함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상명대학교 언어이어서 그런지 아동들과 함께 하는 캠프 내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영북면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

제3기 영북면 주민자치위원장 정해균 취임

제3기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해균)가 7월22일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해균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위원장이 있으며 너무 힘든 일을 맡았다는 생각에 부담은 되지만 영북면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4년 동안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임수홍 전 위원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기를 맞이하는 위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함께 한 것에 감사드리며 영북면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7월12일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 정상문)와 MOU를 맺고 한국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 온 방과후 학교에는 15명의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모여서 담당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토요일(일명 놀토)에는 서울의국어고등학교 유학반 학생들의 봉사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고문 임수홍 ▶고문 김택곤
- ▶고문 정용부 ▶고문 김진덕
- ▶고문 박경희 ▶위원장 정해균
- ▶부위원장 전상수 ▶사무국장 조병찬
- ▶총무 차인숙 ▶감사 유창열
- ▶감사 김미경 ▶자치기획분과 ▶전상수 ▶유창열 ▶박재준 ▶김미경 ▶차인숙 ▶문화여가분과 ▶정기모 ▶전영성 ▶김용겸 ▶류희관 ▶이창구 ▶김재영 ▶주민복지분과 ▶이종훈 ▶강기숙 ▶김순애 ▶김진애 ▶차준혁 ▶박의수 ▶지역개발분과 ▶이남취 ▶이동찬 ▶양운호 ▶조병찬 ▶이경준

김미경 주부 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농부일기

갈라진 아버지 발뒤꿈치 사이로 농부의 생 70년이 흘러져 나왔다 먼지처럼 훌훌 털어 버린 지난날은 타박기 한 사람이면 시원타 하겠지만 눈두렁에 잡힌 발목은 평생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힘겹게 배어버린 벌판엔 이삭으로 남겨진 계절이 버티고 있었고 아버지 상처 같은 쌀 알갱이 설그럼설그럼 눈물처럼 삼키며 자신들은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김은희 주부 명예기자단 연천지부장

사랑의 익스프레스 봉사활동 話題

영북면 아마무선봉사회 저소득층 대상

지역의 봉사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젊은 층의 도시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이삭집 나르기 봉사활동에 나서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7월21일 영북면 아마무선봉사회(회장 김수성)는 영북면적십자봉사회, 사회복지도우미와 함께 영북면 운전리 박모씨(73)의 이삭집을 날라 주었다.

아마무선봉사회가 실시하는 사랑의 익스프레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삭집을 지정해 영북면사무소 봉사회에 접수하면 회원 및 도우미들이 무료로 이삭집을 날라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이삭을 마친 박모씨는 "어떻게 이삭을 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아마무선봉사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의 봉사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젊은 층의 도시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이삭집 나르기 봉사활동에 나서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자유기고 아기가되어버린 울엄마

그렇게도 강하시던 울엄마가 아기가 되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콘소리로 두 번 세 번 울며 하고 불렀더니 주방 저쪽에서 절름거리며 나오시면서 반가움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내가 웬일이냐고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울을 터뜨리신다. 한소리 또 하시고 갈 때마다 들려주는 동네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시면 그러실까 하고 맞장구를 치며 들곤 한다.



강옥자 주부 명예기자단 이사

요즘 들어 엄마는 돌아간 아버지가 사다놓은 엄마께 새끼를 7마리나 낳아서 밤 주고 돌보는 재미가 여러편이 쯤 줄어든 편이다. 마당에는 채소화가 만발하여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하계 세미나로 해마다 여름이면 친정에 간다. 휴가 겸 떠나는 친정나들이는 나를 일년 중 가장 마음 편하게 지내다 오는 시간이다. 하룻밤만 자고 다시 와야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엄마와 조용하게 지내다 오곤 한다. 만나서 반가웠지만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혼자 계산 엄마를 홀로 두고 울 생각

을 하면 차마 몇 시쯤 갈까 된다고 말 씀을 못 드린다. 물론 한 통에 애가 막내 동생이 잘 볼 보아 주지만 아기로 변해 버린 울엄마는 육담매 모두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를 누구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엄마 이제 가봐야겠어요 인사 올리고 차에 오르려면 엄마도 나도 눈물이 난다. 이게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이 나를 무겁게 한다.

한참을 차안에서 남편 눈치 보며 울다가 나도 모르게 고속도로 여기저기 아름다운 산천 초목에 매료가 되어 엄마 생각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혀지니 마련인가 보다. 나는 벌써 엄마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치중하여 스케줄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제3기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7월22일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을 발전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영북면장은 "그동안 애써주시신 2기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기 위원들은 그동안 담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활발한 자치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아이템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애착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3기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및 분과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Essay

그녀 (I)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을 한 게 바보였구나 거짓말이나 정말인가... 날 두고 가신다는 그 말이 기왕에 가시려거든 가슴속에 남아 있는 정마저 가져가버려주세요. 처음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끝나는 것들 속 다르고 걸 다른 당신.....

경쾌한 리듬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감겨진 눈 밑으로 눈물이 흐른다.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춤을 추지만 그녀는 점점 깊은 추억의 늪 속으로 빠지는 듯 노랫말에 절절함이 묻어난다. 언젠가 비가 몰아 오던 날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를 단편이지만 글 쓰고 싶었다 그것을 이루지 못 할 때 내게 짧게나마 자기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 후 난 그녀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에게서 발신지 없는 한 통의 글을 받았다. 혼자 살던 그녀는 우연히 문명적인 한사람을 만났고 처음엔 그저 그런 통상적인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의 모든 부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봄바람처럼 가슴속으로 파고든 사람은 불꽃처럼 타올라 용광로 같이 식을 줄 모르는 애모로 이어졌고 그녀는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그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 태양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있어 그는 생활 자체가 되어 버렸고 어떤 하루에 없는 아들보다 더 소중한 소중한 자신의 반쪽처럼 느껴졌으며 그가 아들 딸 자기의

아름이상으로 애웠다. 그 역시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그녀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인생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 살아 있는 자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갖게 해 주었다. 그녀는 참으로 행복했고 정말 후회 없이 있다면 다시 여자 태어나 그의 배필이 되어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염원했다. 그들은 부족한 부분을 나누었고 이해했으며 배려하며 많은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 그간 함께 했던 많은 순간 순간들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하기를 그녀는 간절히 소망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세월처럼 영원하면서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었는가? 어느 날 그는 느닷없이 그녀에게 버리를 선언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망연히 서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녀는 알 수 없다. 왜 그가 버리를 선언했으며 또 그녀는 그냥 그렇게 그를 보냈는지.....

아마도 그녀는 그와의 별리는 용서가 되어도 사랑이 퇴색되고 시들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차마 자신이 견딜 수 없었음이라. 그녀는 그를 만나지 못한 진정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으며 무조건 좋았고 무작정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후회도 여한도 없다면서 추억이 아름답게 살아 있을 때 미련 없이 떠날라고 했다.



김기호 주부 명예기자단 고문

자유기고

수험생 딸 힘내라!

오라기라 비가 내리더니 잠시 소강상태! 덩수룩한 머리에 여기저기 보이는 흰머리,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내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하지만 학생에게는 여름방학을 어른에게는 휴가로 선물을 가져다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단골미용실을 찾으니 손님이 많아 옆 미용실로 들어갔다. "어서오세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작은 키에 날씬한 몸매, 시원한 옷차림, 깔끔하게 손질된 짧은 파마커머리다.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배꼽의 장신구에 눈길이 머무른다. 과감하며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요즘 유행하는 잡지 속 모델을 연상케 한다.

커트머리로 가르마 없이 귀 뒤로 넘기지 않고 염색을 하면 뽀얗게 보인다며, 빠르게 움직이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헤어디자이너로 일한 것이 8년이라며 직업에 만족 하다고 한다. "손님 직장 다니세요." 목장을 한다고 말하니 우리 부모님도 창수면에서 보장산 목장을 해요. 낙농행사에서

만나고 여행도 함께 했던 잘 아는 목장집 딸을 성인이 되어 만나 반갑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다. 벌써 나도 수험생 엄마가 되어 큰딸 연희군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수험생 엄마로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잡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침을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겠다.

연희가 대학입시 준비로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가서 딸 풀리며 공부하고 있었는지? 몇 개월 동안 아프지 말고 너에게는 두 번 다시 대입수험생은 오지 않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힘들고 지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이겨내라! 이 다음에 뜻이 닿으면 당당하게 좋으라는 일을 하며 살아갈 딸을 생각하니 입가에 웃음이 머무른다. 사랑하는 딸 파이팅!



이은미 주부 명예기자단 이사

웰빙 부사의(不思想) 정체성 (正體性) 57

우리는 흔히 시국을 한탄(恨歎)할 때 정체성(正體性)이 없다는 말을 한다. 정체성이란 무엇이 한탄이란 무엇인가? 한탄한다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다. 원통(冤痛)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후회(後悔)하며 한숨쉬는 것이다. 분하고 원통할 때 한숨쉬며 한탄하는 것이다. 내 잘못이 왜 이렇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비통(悲痛)해 한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정체성(正體性)을 생각한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인가? 자문(自問)하는 것이다. 자성(自省)하는 것이다.

지켜야 하는 혼(魂) 체(體) 도(道)가 바로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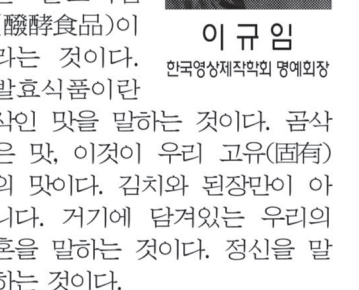
틀을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라고 하였고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 하였으며 조선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하였다. 삼국이 각각 표현은 달랐으나 그 의미(meaning)는 같았다. 아시아의 혼(魂) 체(體) 도(道)는 지키면서 재(才) 용(用) 기(器)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여기서 삼국이 받아들여오자 했던 재 용 기는 바로 서구의 과학(science)이었다. 반면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혼 체 도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정체성(正體性)이었다. 자기 정체성은 지키면서 서구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우리 선조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정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대답은 쉽지 않다. 정체성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다움이다. 개성(個性)이다. '자기다움'과 '개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duplication)가 된다. 아류(亞流)의 슬픔은 항상 일류(一流)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류는 항상 흔들리고 불안하다. 깊은 자기안정감(自己安定感)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류의 지배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안정감이 없다는 것은 깊은 행복감(幸福感)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정체성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고아(孤兒)가 된다.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도 다음 4가지는 익혀야 한다. 첫째는 한국어(韓語)와 문자(文字)이다. 말과 글자를 모르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눈은 장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국어나 자국문자가 없으면 문화화(文化)적으로 속국이 되고 만다. 문화가 곧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역사(韓國歷史)이다. 유가(儒家)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불가(佛家)의 일연이 쓴 '삼국유사' 선가(仙家)의 북애노인이 썼다고 하는 '구원사화' 같은 책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한다.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뿌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자기를 주장(主張)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역사에서 찾고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는 한국음식(韓國飲食)이

다. 김치와 된장 맛을 알자야 한다. 김치와 된장은 우리의 대표음식이다. 그 특성은 발효식품(醱酵食品)이라는 것이다. 발효식품이란 식인 맛을 말하는 것이다. 곰삭은 맛, 이것이 우리 고유(固有)의 맛이다. 김치와 된장만이 아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것이다. 정신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규연 민족역사학박사 명예회장

넷째는 한국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알아야 한다. 지리산 설악산 계룡산을 비롯한 10대 명산(名山)과 십승지(十勝地) 36명당(明堂) 그리고 72유적지(遺蹟地)를 발로 밟아보아야 한다. 아는 것과 답사(踏査)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체험(體驗)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現場)만큼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없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든 김정호가 돋보이는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인들이 추구했던 동도(東道)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의 정체성(正體性)이다.